

충남의 희망근로, 첫삽 순항중

- 하루 참여인원 11,017명(목표인원 10,438명의 132%)



충남도는 지난 5월 "희망근로 프로젝트 TF팀" 구성에 이어 사업비 총 716억원을 확보하고 도내 992 사업장에 목표인원(10,438명)의 106%에 해당하는 11,017명을 투입하여 일제히 희망근로 사업을 시작했다. 희망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 시도와 차별화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창안 일자리(LIP) 사업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소

미진작 효과가 큰 5대사업을 선정, 충남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근번 희망근로로 시작하는 주민창안 일자리(LIP) 사업 중 도에서 심사 후 확정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하여 42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군에서 심사 후 추진할 LIP사업은 총 25개 사업(24억, 일자리 428개)을 추진하게 된다.

도에서 확정된 LIP 사업으로는 ▲지하수 방지공 찾기 사업(1,936백만원을 투입, 400개 일자리 창출) ▲공공미술 벽화 그리기 사업(152백만원을 투입, 23개 일자리 창출) ▲행복찾는 콘서트 사업(207백만원을 투입, 24개의 일자리를 창출)이다

또한, 충남을 대표할 랜드마크 사업으로 5대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 총 102억원을 투입 1,90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으로써 전체적인 희망근로 사업을 선도해 나가고, 시군에서 총 40개 사업을 선정(127억원 투입, 일일 2,270명 투입)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에서 추진할 충남 5대 랜드마크 사업으로는 ▲태안 꽃박람회 후속으로 태안경제 살리기 사업(50억을 투입, 998개의 일자리 창출(태안)) ▲금강사랑 탐방로 정비사업(12억을 투입, 109개 일자리 창출(공주, 부여, 연기, 서천)) ▲하천살리기 환경식물 식재사업(5억을 투입, 98개 일자리 창출(공주, 보령, 아산, 서신, 논산, 연기, 당진)) ▲동네마당 조성사업(15억을 투입, 302개 일자리 창출(공주, 금산, 서천, 홍성)) ▲폐 지하관정 복구를 위한 조사사업(19억을 투입, 400개 일자리를 창출(16개시군))이다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윤곽 드러나

- 초광역적, 초월경적 서해안 산업·관광 융복합 골드벨트 조성



충남도는 5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및 시군 관련공무원과 국토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첨단산업벨트 구축 ▲해양생태 체험테마형 해양관

광벨트 조성 ▲공항·항만 물류체계 구축은 핵심사업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첨단자동차, IT, 석유화학 등을 기반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농축산바이오 융합 6차산업화 ▲농업고도화 및 녹색성장 지원사업 ▲안면도국제관광지와 태안 관광레지형기업도시 등을 연계한 융복합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및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서해안 개발 계획이 제시됐다.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서해안권 4개 시·도가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들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연계하는 초광역적 국경을 초월한 초월경적으로 수립하는 광역적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공청회와 서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9월 국토해양부 승인신청을 거쳐 연말까지는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함께 떠나요.... 신나는 충남 여행!

- 道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변 관광상품 홍보활동 전개

충남도가 5월 28일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5월 30일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 6개소(공주IC, 당진 면천IC, 청양IC, 부여IC, 서천IC)에서 충남관광 홍보물과 관광지도 등을 배포하는 홍보활동을 벌였다.

- ▶공주IC : 주요 관광지 - 무령왕릉, 공산성, 국립공주박물관 / 인근 먹거리 - 청벽장어, 공주칼국수, 따로국밥
- ▶마곡사IC : 주요 관광지 - 마곡사, 마곡장승마을, 온천관광지 / 인근 특산물 - 공주알밥, 신평고추, 표고버섯
- ▶유구IC : 주요 관광지 - 유구직물단지, 외암민속마을, 온양온천지구 / 특산물 - 유구직물, 연엽주
- ▶신양IC : 주요 관광지 - 예당저수지, 봉수산자연휴양림 / 인근 먹거리 - 수덕사 산채정식, 삼다리곱창, 소복갈비
- ▶고덕IC : 주요 관광지 -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 먹거리 - 고덕갈비
- ▶면천IC : 주요 관광지 - 솔비성지, 합덕수리박물관, 삼교호관광지, 왜복관광지, 함상공원, 서해대교 / 먹거리와 특산물 - 두견주, 면천어죽, 당진꽃게장, 각종 해산물과 건어물
- ▶청양IC : 주요 관광지 - 칠갑산, 천장호, 장곡사, 다락골줄무덤, 칠갑산자연휴양림, 고운식물원 / 인근 먹거리와 특산물 - 청양고추, 구기자, 참계매운탕
- ▶부여IC : 주요 관광지- 백제역사재현단지, 고려인삼창, 부소산, 정림사지, 궁남지 / 인근 먹거리 - 장어, 우여회, 연잎밥
- ▶서부여IC : 주요 관광지 - 서동요테마파크, 무량사 / 인근 먹거리 : 산채비빔밥, 한방오리, 추어탕
- ▶동서천IC : 주요 관광지 - 금강하구천새도래지, 신성리 갈대밭, 한산모시관 / 인근 먹거리 및 특산물 - 해산물, 추어탕, 복탕, 한산모시, 한산소곡주

도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돼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변 주변 주요 관광지를 코스별·테마별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듀! 꽃들의 대향연이여...

-환희와 아쉬움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슬한 화제와 여운을 남긴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5월 20일, 장장 27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 22개 나라 121개 업체와 단체, 정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날 24일 공식 개장한 안면도 꽃박람회는 당초 목표 110만 관람객 유치를 크게 뛰어넘어 그간 총 입장객 200만명이라고 하는 기적적 대기록을 달성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안면도가 지난 2002년 꽃박람회를 계기로 꽃과 새들의 낙원으로 변모하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였듯 이번 꽃박람회를 계기로 다시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배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모멘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꽃지 주전시장과 인근 수복원 부전시장 등 총 79만3천여㎡의 대평원위에 7개 실내전시관, 15개 야외 테마정원, 20개 소원(小園)에서는 그간 송래문 토피어리를 비롯해 '말에 다도 꽃피는 나무' 그래스트리, 세계적으로 처음 선보인 아이스크림 튜립, 이소연의 우주꽃 등 다양한 킷콘텐츠가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당초 110만 관람객 유치목표 아래 3,100명 고용효과와 1,6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되었으나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하면서 그 유발효과와 향후 후광효과는 단순 배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직위 권희태 사무총장은 "천혜의 관광보고 안면도에서 세계적인 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게 돼 무엇보다도 기쁘다"며 "이번 꽃박람회를 계기로 검은 바다를 청정해역으로 뒤바꾼 것처럼 온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